

**도정혁신
추진단**

제 때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혁신 추진

□ **주요내용**

- 기존 관행과 선례에서 벗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하고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

□ **추진실적**

- 새로운 관용차 패러다임 **광역최초 전기차 공유서비스(나누카*)** 도입
 - * 나누카 : '도민과 나눠 쓰는 관용차(car)' 라는 뜻, 직원 공모전에서 선정('22.5.4.)
 - 전기차 10대(본청 7, 서부청 3) 도입, 본격 시행('22.5.9.) 후 이용률 100%
 - 민간의 전기 공유차를 빌려 업무시간에는 직원 출장용으로, 업무시간외 유희시간에는 직원과 도민이 여가용·출퇴근용으로 사용

구 분	기존 관용차 이용	⇒	나누카 이용
차량배차	업무관리시스템 활용 (신청→승인→차키 수령)		앱 활용(회원가입) ※ 배차승인 및 차키수령 불필요
차량반납 (늦은 복귀 시)	차량관리실 연락 후 지정된 장소에 반납		개인용 상품 구매하여 현장 퇴근 후 익일 반납 가능
차량관리 (주유·세차·정비)	차량관리실에서 관리		이용자가 직접 충전 업체가 주1회 세차·충전/월1회 정비
도민 이용	도민 이용불가		개인용 상품 구매하여 업무시간외 출퇴근·여가용 이용가능

- ① 추경예산에 신규시책 편성을 위한 예산담당관실 및 의회 설득('22. 1~3월) → ② 전기 충전기(10기) 설치업체 발굴(2~3월) → ③ 전기공유차 임차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(3~4월) → ④ 충전기 설치 및 임차계약 체결(4월) → ⑤ '나누카' 이름 공모(85개 이름 중 '도민과 나눠 쓰는 관용차(car)' 선정) → ⑥ 이용매뉴얼 배포, 홍보, 관리(5월) 등 새로운 시책을 상반기내 예산 확보부터 시행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
- 주차장 부지사용허가 및 주차블럭 설치 등 회계과·서부정책과와 협업
- 공직사회 벤처형 실험조직 G-랩 기대 이상의 성과 달성
 - 예산도 없이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폐기처분 대상인 PC 5대를 이용

- 공무원 2명이 5개의 시스템을 구상, 설계, 개발, 유지보수까지 담당



(1호) 구내식당 배식 대기 밀집도 열람 서비스 <언제갈까?>

- 식당 배식대기 현황을 인공지능활용 스냅샷으로 찍어 제공, 코로나19 감염 예방

(2호) 개인 맞춤형 업무동향 브리핑서비스 AI 비서 <어땠노?>

- 기관별 업무정보·동향을 자동 수집·분류하여 개인별 전송, 데이터중심 행정 추진

(3호) 원터치 디지털 출장증빙 시스템 <요있다!>

- 출장지에서 휴대폰의 위치정보 연계 출장사실을 간편하게 증빙, 업무생산성 제고

(4호) 모바일 사진촬영 전송시스템 <My Photo>

- 휴대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송, 출장·검수 등 활용

(5호) 업무담당자 실시간 검색 서비스 <누고?>

- 업무명 입력하면 3초 내 시도·도내 시군 담당자 부서, 이름, 전화번호, 업무 추출

○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적극행정 성과점점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

- 적극행정 전담팀 신설,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지원단 운영하여 불명확한 법령으로 적극적 업무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견 제시(71건)

□ 주요성과

○ 현장밀착형 행정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

- 10대 도입으로 관용차 구입예산 1억5천만원 절감, 20톤 이산화탄소 감축
- 사회재난과(19회)·도로과(13회)·균형발전과(12회) 등 민원 현장 168회 신속 대응

○ 온전히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대도민 서비스에 집중

- 1일 평균 사용량 : (언제갈까) 400건 + (어땠노) 2,500건 + (요있다) 400건 + (My Photo) 400건 + (누고) 100건

- 연간 52,000시간 행정효율 향상, 26명 인력 및 5억원(최저임금 기준) 예산 절감

○ 적극행정의 실질적 노력으로 밀양시와 한전간 밀양 송전탑 분쟁을 해결하고

한전으로부터 밀양나노국가산단에 대한 46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냄